

01 교회소식

찬양으로 하나 된 메시아닉 쥬

이재록 목사 이스라엘 선교의 열매인 크리스탈포럼 주최로 제4회 찬양 페스티벌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열렸다.

02 생명의 말씀_ 선 시리즈 17

엘리아의 선 (3)

엘리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자기 본분을 지켰고 항상 자신을 낮추며 오직 주의 영광만 구했다.

03 기획특집

내 마음의 선(善)은?

선한 마음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다.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얼마나 선한 마음을 이뤘는지 점검해 본다.

04 간증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우리 교회 찬양 전문 닥시오케스트라 단원 김은정 집사 가정과 '영혼육' 설교로 변화된 태국 캄디타 인간 자매 간증.

만민뉴스

제584호 2013년 6월 2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예슈아,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이스라엘 크리스탈포럼 주최 찬양 페스티벌 열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스라엘, 주님의 음성이 들릴 듯한 갈릴리 호숫가에서 울려 퍼진 감동의 찬양은 1,7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방송 전파를 타고 전 세계에 전해졌다(사진 위 왼쪽 한주경 찬양선교사, 오른쪽 글로리 워십팀).

지난 5월 17일, 주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이스라엘 갈릴리 호숫가 야외무대에서 크리스탈포럼(이스라엘목회자협의회) 주최 찬양 페스티벌이 열렸다.

이 행사에는 이스라엘을 비롯해 미국, 러시아, 벨로루시, 독일, 스위스 등 여러 나라에서 1,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TBN 러시아 방송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야외 공공장소에서 담대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한 이번 행사는 크리스탈포럼이 얼마나 힘을 얻고 성장했는지 잘 보여 주고 있다.

이스라엘은 국민 대부분이 유대교를 신봉하며 기독교인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나 유대교는 오직 유일신 여호와만 섬기며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메시아닉 쥬'(Messianic Jews)라 불리는 기독교인들은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목회자들은 핍박과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힘든 사역을 하고 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12차례 이스라엘 전역을 순회하며 따르는 권능의 역사로 복음을 전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 섭리를 깨달은 현지 목회자들은 '크리스탈포럼'을 결성해 이스라엘을 깨우고 있다.

2009년 9월에는 '이스라엘 연합대성회'를 개최해 220여 개국에 중계되는 가운데 강사 이재록 목사를 통해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를 담대히 선포했다.

이후 크리스탈포럼은 부부세미나, 청소년 캠프, 찬양 페스티벌 등 활발한 사역을 하고 있다. 특히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통해 회개와 각종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 또한 TBN 러시아, CNL, 훌리갓 TV, 로드로이드 등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매일 공급받으며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있다.



이번 찬양 페스티벌에는 이스라엘 아쉬도트, 하이파, 예루살렘, 나사렛, 텔아비브 등 여러 지역의 찬양 리더들과 아프리카 찬양팀, 우크라이나의 옥사미타를 비롯 러시아의 게라심, 발레리 등 유명 복음 가수와 벨로루시 유명 찬양팀 '새 예루살렘' 리더 알렉산더의 공연으로 기쁨을 더했다.

우리 교회 예능위원회에서는 한주경 찬양선교사와 글로리 워십팀이 초청받아 오프닝과 피날레를 담당했다. 이 공연을 본

사람들은 "많은 공연팀 중 최고였으며, 히브리어와 러시아어 발음이 정확했다.", "아름다운 의상과 소품을 보며 천국이 연상됐다."라는 애김없는 찬사를 보냈다. 행사는 프로그램으로 제작돼 TBN 러시아와 CNL, 임팩트 TV 등을 통해 방영된다.

주최 측에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 주님을 찬양했다는 사실이 감격스럽다. 이는 이재록 목사님의 이스라엘 선교의 열매이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엘리아의 선 (3)

“나의 말한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요한복음 3:28~30)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아합은 바알의 제사장이었다가 시돈 왕이 된 옛바알의 딸, 이세벨을 왕비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타락의 길로 빠져드는 것은 시간 문제였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시대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아를 보내 주십니다.

엘리아는 자기 의가 없고 겸비해 누구와도 부딪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오직 순종만 했지요. 이방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 불의 응답을 끌어내려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나타내며 타락한 백성을 돌이키게 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사명을 마친 후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지요.

그런데 천국에 가셔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불붙는 듯 했던지 결국 다시 이 땅에 세례 요한으로 태어나 주님의 길을 예비했고 결국 순교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아 곧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어떠한 분야를 선으로 여기며 기뻐하신 것일까요?

1. 자신이 엘리아인 줄 몰랐던 세례 요한

제사장 사가랴와 아내 엘리아벳은 아이가 많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장이 사가랴에게 나타나 장차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주지요.

누가복음 1장 13~17절에 “... 네 아내 엘리아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 저가 또 엘리아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했습니다.

그 후 엘리아벳이 수태해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빈 들에 있었다”는 것은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이뤘고 세상에 드러날 때를 정확히 주관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아인 줄을 알고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21절에 유대인들이 “네가 엘리아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아니라”고 답한 것만 봐도 자신이 엘리아인 줄 몰랐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엘리아의 마음이 담긴 영은 받았지만 부모의 기로 인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영 자체가 마음이고, 부모의 기를 전혀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왔는지 잘 아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열두 살 때에 있었던 일을 통해 알 수 있지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찾은 육의 부모에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십니다.

어릴 적부터 자신에 대해 아셨던 예수님과는 달리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 안에 엘리아의 마음이 담겨 있었기에 어렵듯이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마음의 주관을 받았지요. 스스로 세상과 구분된 절제된 삶을 살며 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 깨달아갔습니다. 즉 ‘자신이 오실 이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과 무엇을 외쳐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주관받아 세상에 드러날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2. 자기 본분을 변함없이 지키는 선(善)

세례 요한은 때가 되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습니다. 이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다 그에게 나아와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지요(마 3:5-6). 백성은 요한이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의논하게 됩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눅 3:16)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본분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임을 분명히 알았기에 그 이상의 선을 넘지 않고 잘 지켰습니다. 항상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고 전파하니 사람들은 장차 오실 분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자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이때 요한의 제자들이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 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라고 하지요(요 3:26). 그러자 요한이 “이제 내 시대는 끝났구나!” 하며 슬퍼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나의 말한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했지요(요 3:28~30). 제자들을 타이르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본분을 되새겼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진실로 기뻐했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의 주님에 대한 마음은 순교하기까지 변함없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자신의 본분을 변함없이 지키는 기뻐하며 선으로 인정하셨습니다.

3. 겸비하게 자신을 낮추며 오직 주의 영광을 구하는 선(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에게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분자들은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설령 직분이 없어도 누구나 전도의 사명이 있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이 있지요. 어떤 사명을 맡았다 해도 세례 요한처럼 변함없이 자기의 본분을 지키면 주의 길을 잘 예비한 일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소중한 그릇이 되려면 사심이 없고 겸비하게 자신을 낮추며 주님만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자신도 영광을 누리하고자 하는 사심이 없이 오직 주의 영광만 위해 진실한 마음으로 행해야 하지요. 또 주의 일을 이루는 동역자들이 나보다 더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중심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신의 기득권도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것인가’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더 드러낼까’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나는 없고 오직 주의 영광만 구하는 사람’의 큰마음이지요. 각 분야에서 일꾼이 세워질 때도 자신이 ‘어떤 사명을 받게 될까’에 연연하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보다 나는 사람이 머리로 세워지길 바라야 합니다.

이것은 주의 일에 대한 열심이 없거나 식어져서 뒤로 물러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설령 나보다 못한 사람이 머리로 세워졌다 해도 그가 충만하게 잘할 수 있도록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선이지요.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사랑받고 칭찬받아도 시기하지 않고 불평해하지 않으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녕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린다면 엘리아처럼 자기를 온전히 비우고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신의 본분을 변함없이 지켜야 하지요. 그리하여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 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일·공요철야 각 지역별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번 출구)/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도보 10분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 5626,5630,5712,5714
연희미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 651,5528, 504,643,5626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 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 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 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사백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나는 얼마나 선한 마음을 이루었을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고 빛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도 온전한 빛 가운데 거하길 원하신다.
어둠이 없는 것이 영적인 권세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아래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선한 마음을 이루며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기 바란다.

Q

주는 것에 익숙한가?
받는 것에 익숙한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다. 여기서 '주는 것'과 '받는 것'은 물질만이 아니라 시간이나 노력 등이 필요한 모든 진리의 행함을 포함한다.

예컨대, 어떤 사람은 구제받았을 때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뿐 아니라 자신도 구제를 하며 변함없이 감사의 고백과 행함을 보인다. 반면 어떤 사람은 구제받은 것에 감사를 표하기는 하지만 정작 자신은 행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구제가 선한 일인 줄 알고 남들에게는 그 선을 행하기 원하면서 자신은 행하지 않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해 충성, 봉사하다가도 이내 변질되기도 한다. 혹여 사람들과 부딪치는 일이 생기면 은혜 갚고자 하던 마음까지 사라지는 것이다.

한편, 어떤 사람은 모임이 있을 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먼저 와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열심히 살핀다. 미리 가지 못하고 더 섬기지 못했을 때에는 오히려 민망해하며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고 행한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늦는다. 지각은 하지 않는다 해도 남들이 다 준비해 놓고 사람들이 모인 후에야 모임에 온다. 바로 남들이 먼저 와서 준비하고 섬겨 주는 것을 받기만 하는 습관이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어떤 사람은 구제나 선물하기를 즐거워하며,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찾아서 주변 사람들을 섬긴다. 하지만 상대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지 못하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등 기대하는 바를 얻지 못하면 '저 사람은 도리를 모르는 사람이다. 교만하고 무례하다.' 하며 불편해하고 서운해한다. 이 경우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하다고 인정하실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마음, 영의 마음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고 상대의 마음을 편하게 해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을 주고 또 주기 원하신다. 이처럼 우리도 '한 번 섬겨 주었으니 할 바를 다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받기보다는 주기를 즐겨하는 마음이 돼야 할 것이다.

Q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입장이 되는가?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는 섬김과 희생 등 선한 것을 구하지만 막상 현실적인 상황에서 상대의 행동이 내 유익에 맞지 않으면 상대를 이해하거나 용납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함께 봉사를 하던 일꾼이 일찍 들어갈 때 선한 마음이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이해하므로 전혀 불편하지 않다. 다만 더 열심히 일해서 순조롭게 그 일을 진행하려고 할 것이다.

반면 어떤 사람은 '나도 바쁜데... 미리 약속된 일이었는데 꼭 지금 가야 하나?' 하거나 심지어 '얕체 같다.' 하며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한다. 혹은 '내가 봉사할 일이 있을 때, 저 사람이 빠진 시간 만큼 부탁해야겠다.' 하며 계산적인 생각을 하기도 한다. 이 경우, 봉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선한 향으로 올라가기 어렵다. 선의 말씀을 마음에 이루지 않고 지식으로만 담아 두었기 때문이다.

선의 기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상대에게 적용하면서 자신은 선하고 의롭다고 착각할 수 있다. 상대와는 달리 자신은 바쁜지만 시간을 내서 봉사하고 있으니 선을 행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만약 이런 사람이 자신이 먼저 가야 하는 상황에서 권면의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안 그래도 민망한데 꼭 저런 불편한 내색을 해야 하나? 시간 되는 만큼 이렇게라도 나와서 열심히 했으니 고맙다고 해야 하지 않나?' 하며 기분이 상할 수 있고,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만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자신의 입장과 유익만 생각하면 영적인 선을 이룰 수 없다. 선한 사람은 범사에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더 쉽고 좋은 길을 택하지 않고 상대를 편안하게 해 주는 길, 하나님 나라에 영광 돌리는 길을 찾는 것이다.

Q

질서 속에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윗사람을 대할 때 마음으로 섬기지 않고 질서를 좇아 순종하지도 않는다. 그러면서도 아랫사람이 자신을 섬겨 주지 않으면 질서를 어긴다고 심히 불편해한다. 자기 안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섬겨 주지 않는 아랫사람이 불편한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을 추진하면서 자신을 거치지 않고 윗사람에게 보고하거나 일이 진행될 때 '왜 내게는 보고를 잘 안하나?', '왜 내가 하던 일을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나?' 하며 불편해한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정작 자신은 질서를 좇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윗사람이 어떤 일을 지시했을 때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이런저런 생각 속에 불편해하고 불평하는 것이다.

물론 조직에는 질서가 있고, 직위에 따라 주어진 일이 있기 때문

에 각자 할 일을 해야 한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이해하고 품어야 할 때가 있고, 질서가 잘 지켜지도록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 주어야 할 때가 있다. 아랫사람이 질서를 어길 때 윗사람이 무조건 이해하고 품는 것이 영적인 선은 아닌 것이다.

그러면 매사를 진리로 분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편을 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대를 누르고 머리되려는 마음, 섬김받고 인정받으려는 마음, 자존심 등이 없어야 한다. 그럴 때야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바로 잡아줘야 하는 상황인지, 아랫사람이 부족해도 이해하고 품어야 할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윗사람이 주관받은 것이니 순종해야 하는지, 아랫사람 의견을 수렴해 윗사람에게 건의해야 하는지도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6 June
2013.6.2~6.8

주요 프로그램 안내

- 이재욱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십자가의 도 3-7
- 심고 거두는 법칙 2-4
- 성령의 음성주관인도 1-2
- 죽어지는 밀알이 되자 1-2
- 응답받는 법칙 1-2
- 창세기 강해 4-8
- 공부 잘하는 비결 4-8

GCN TV 설교

-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2-6 (이수진 목사)
- 진실한 마음 (이미경 목사)
- 천국과 지옥 1-3 (이희진 목사)
- 큰 자 (김수정 목사)
- 생명수 (박해상 집사)
- 'GCN TV특강' 십자가의 도 9-13 (정구영 목사)

간중 프로그램

- 크리스천 투데이 40-43
- GCN 간중 스페셜 8, 10-14

해외성회 시리즈

- 인도연합대성회 1
- 에스토니아연합성회 종합편

찬양 프로그램

- GCN 파워프레이즈(2) 3, 5-9
- 찬양과 경배 (3) 24, 27-30, 57-58
- GCN 금요찬양 스페셜 16

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1577-2073



“내 삶의 연주자가 되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김은정 집사 (2대대 15교구, 닛시오케스트라)

했습니다. 그해 7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강원도 평창에서 '주의 종 교육'을 인도하셨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권능으로 나타난 기사를 목도한 것입니다.

그날 하늘은 먹장구름으로 가득해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늦은 밤, 교육 장소에 도착하니 주변과 달리 그곳만 넓고 큰 원형의 맑은 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빛나고 있었지요.

더 신기한 일은 별 하나가 갈 지(之)자로 재빠르게 지나가고, 이어서 퐁퐁 튀는 별, 일(一)자로 지나가는 별, 유성 등 많은 별의 이동을 볼 수 있었습니니다. 마치 이것이 비행기가 아니라고 증명이라도 하듯 옆으로 비행기가 날아갔지요.

이러한 체험은 지식의 틀을 깨뜨리며 믿음을 소유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으로 동방박사들을 인도한 별이 실감났지요. 하나님께서는 당회장님을 통해 교육생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시고 천기를 움직여 놀라운 기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치료 체험을 통해 믿음을 키워 가신 하나님

2006년, 첫아이 임신 중 조산 기미가 보이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당회장님의 자동응답서비스(02-830-5320) 환 자기도를 받은 후 예정일에 맞춰 순산했지요.

그 뒤 둘째 아이를 낳고 바쁘게 살다보니 신앙생활이 점점 느슨해지고 은혜와 충만함을 잃어갔습니다. 닛시오케스트라 활동도 겨우 유지할 정도였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견해 차이로 남편과 다투는 일도 잦았는데, 그때마다 둘째 예준이가 경기를 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딸 딸 예린이가 봉와직염에 걸려 큰일 날 뻔 한 일도 있었지요. 이렇게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당회장님께 기도를 받거나 악수를 하면 깨끗이 치료가 됐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듯하다가도 평안해지면 이내 미지근해졌습니다.

2012년 11월 9일, 집안일로 몹시 분주했던 저는 그만 침대 모서리에 부딪쳐 왼쪽 네 번째 발가락이 골절됐습니다. 발이 퐁퐁 붓고 통증이 심해 걸을 수 없었지요.

병원에서는 깁스를 해서 뼈가 붙지 않으면 수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못하고 기도를 쉬는 등 기뻐하고 감사치 못한 일들을 회개했습니

다. 그리고 깁스를 풀고 믿음으로 치료받고자 준비했지요.

16일, 마침내 믿음으로 당회장님과 악수를 했습니다. 순간 발가락에 힘이 주어지면서 그 자리에서 잘 걸을 수 있었지요. 할렐루야!

요즘 저희 가족은 주님의 사랑으로 아주 행복합니다. 아이들도 건강하고 착하게 잘 자라고 있지요. 이처럼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찬양 연주자가 되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며 공부 잘하는 딸이 되었어요”

판티다 인간 자매 (태국 치앙라이만민교회)



저는 태국 메탐 과학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작년 8월, 치앙라이만민교회에서 배포한 한글 무료 강좌 전단지 받아가 보고 난생 처음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한글을 배우면서 성도들이 가족과 같이 느껴졌고, 예배에도 참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습니다. 당시 치앙라이만민교회에서는 주일 대예배 설교 시간에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영혼육' 말씀을 DVD로 시청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큰 감동을 받고 제 모습을 발견해 변화시켜 갔습니다. 미움이 버려지고 긍정적인 사고로 바뀌었지요.

작년 10월, 각종 예배에 참석하면서부터 독실한 불교 신자인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학교 성적이 올라야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상황이었지요. 이에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님을 섬기고자 노력했고, 기도하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셔서 짧은 시간에도 많은 것을 습득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지난 3월, 마침내 학교 성적이 크게 올랐지요. 더욱 감사한 것은 성적이 좋은 모범생에게 주어지는 성적 우수상까지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은 이제 교회 가는 것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기록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 받은바 은혜가 너무 커서 '민민뉴스'로 전도하고 있지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침례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림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백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444-5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177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181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391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서량만민교회 충북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랑동 956 ☎043)211-1955,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무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미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리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안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청동 909-10호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흥해동 765-2번지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1(순환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26-3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월피동508-1 ☎031)485-9143,010-5583-4697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0-7127-2073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천동 698-12 ☎032)569-3835, 010-3430-3312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7-4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3430-331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7127-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충리동 465-4 ☎031)635-9103, 010-7103-4097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8163-1537